

# 순창군 교육지원액 학교당 4000원

### 과천시와 84만738배 차... 전북 76.2억, 전체 예산대비 0.1%로 전국 평균 0.47%보다 크게 낮아

전북지역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지원액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민주 유은혜(고양병) 의원이 교육 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자치단체 교육지원금은 76억 2,000여 만 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0.1%다.

이는 전국 평균인 0.47%보다 크게 낮은 것이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2

번째로 낮은 것이다.

특히 순창군의 경우 자치단체 지원금은 10만 원, 학교당 4,000원에 불과해 가장 많은 3억 3,629만 5,000원을 지원받은 과천시와 84만 738배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지원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852억 원이었다. 이어 두 번째 지자체로는 852억원을 지원한 서울이었다.

가장 적게 지원한 지역은 광주, 그 다음은 세종으로 이 두 지역은 교육

지원액 총액이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치단체의 총예산 대비 교육지원액을 분석해본 결과 전국 평균은 0.47%였으며 ▲1위 경기(1.17%) ▲2위 서울(0.74%) ▲3위 인천(0.40%)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광주가 0.03%로 가장 낮았으며, 전체 17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 6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지자체의 학교지원액은 늘고 있지만 지원액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며 "지자체에 재정보조를 해주는 교부세를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 이정현 "내일부터 국감 복귀"

### "단식은 계속할 것"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내일부터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며 국감 복귀 방침을 철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사퇴 관철을 위한 새누리당 당원 규탄 결의대회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 의원들과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실한 국감을 통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예산은 바로 쓰고 있는지, 국민에게 갑질은 안 하는지 감시하고 바로 잡아달라"

### 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관철시킬 때까지 자신의 단식 투쟁은 무기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끝까지 남아 정의가 사퇴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며 "거야의 횡포를 저 이정현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를 위해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의정이 특정 야당 편에 서서 의무를 망각하는 정세균 의원을 의정석에서 끌어내서 사퇴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

## 지방경찰청 17곳 중 11곳 표창수여한도 초과 표창

경찰이 표창을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곳 지방경찰청 중에서 11곳(69%)이 나 표창수여한도를 초과해 표창을 남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표창수여한도 건수를 가장 많이 초과한 곳은 서울경찰청으로 475건을 초과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청(211건), 전남청(195건) 순이었다.

표창수여한도 초과 비율로 보면 전남청이 17%를 초과해 가장 높았고 울산청과 충남청이 16%를 초과해 뒤를 이었다.

경찰의 표창수여한도는 지난해까지 지방청장 표창의 경우 정원의 20%, 경찰서장 표창의 경우 정원의 40% 이하였다. 하지만 올해 포상인원 책정기준에는 지방청장 표창은 정원의 25%, 경찰서장 표창은 정원의 50%로 포상인원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경찰포상규칙'과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총량제를 통해 표창수여한도를 정해놓고 있지만 이를 초과해 표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



**지역희망박람회** 28일 경기도 일산 킥스 전시장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 박근혜 대통령과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도 홍보관에서 청년사업가들의 창업소개를 듣고 있다.

## 전북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 284.5대 1

### 4명 모집에 1138명 지원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내달 1일 필기시험

전북의 7급 공무원 필기가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16개 시·도가 선발하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이 내달 1일 전국 67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275명을 선발하는 7급 공채에 3만3,548명이 지원 평균 1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북의 경쟁률이 가장 치열했다.

전북은 4명 선발에 1,138명이 몰려 284.5대 1로 가장 높았고 인천(249.3대 1), 광주(205.8대 1), 경기(196.2대 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계 고졸 9급 경력경쟁 임용시험과 연구·지도직 시험도 함께 치러진다.

수험생은 시험장에 오전 9시20분까지 입실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과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가운데 하나를 소지해야 한다고 행정자치부는 28일 밝혔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배탈 등 불가피할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재입실은 금지된다.

도 관계자는 "필기시험 합격자는 11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 사직서 제출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이 정무부지사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4일 퇴임식을 한다.

이 부지사는 퇴임 후 전주대 창업지원단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지사는 수개월 전부터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송하진 지사의 민류

로 차일피일 연기하다가 결국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사는 그동안 세계캠버리대회 유치 추진 등 전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도는 후임으로 경제 분야 전문가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북 출신에 중앙부처 고위직을 지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형 기자

##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 408건

최근 5년간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소송 관계인 등의 주민번호를 유출시키는 등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모두 408건이다.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 조회와 개인정보 유출로 나뉜다. 같은 기간 불법적인 개인정보 조회에 의한 징계는 총 305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청(45건), 부산청(36건), 대구청(24건) 등의 순이었다. 징계건수가 적은 지역으로는 대전(0건), 광주(2건), 충북(4건), 전북(7건)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건수는 총 10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건, 부산과 경북이 각각 7건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가벼웠다. 총 408건의 징계 중 64%(260건)가 경계징계인 견책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조회의 경우 305건 중 78%(237건)가 견책이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8건 중 과면이 8건, 해임 17건, 강등 2건, 정직 34건, 감봉 87건, 견책 260건이었다.

소 의원은 "경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위법한 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 의원은 실종아동 미발견이 1년 사이에 2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8명의 실종아동을 찾지 못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07명의 아동 행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43명, 서울 37명, 부산 26명, 대구 14명, 대전 4명, 울산 6명, 강원 5명, 충북 14명, 충남 12명, 전북 7명, 전남 12명, 경북 9명, 경남 12명, 제주 2명이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KF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지사장 김선호**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